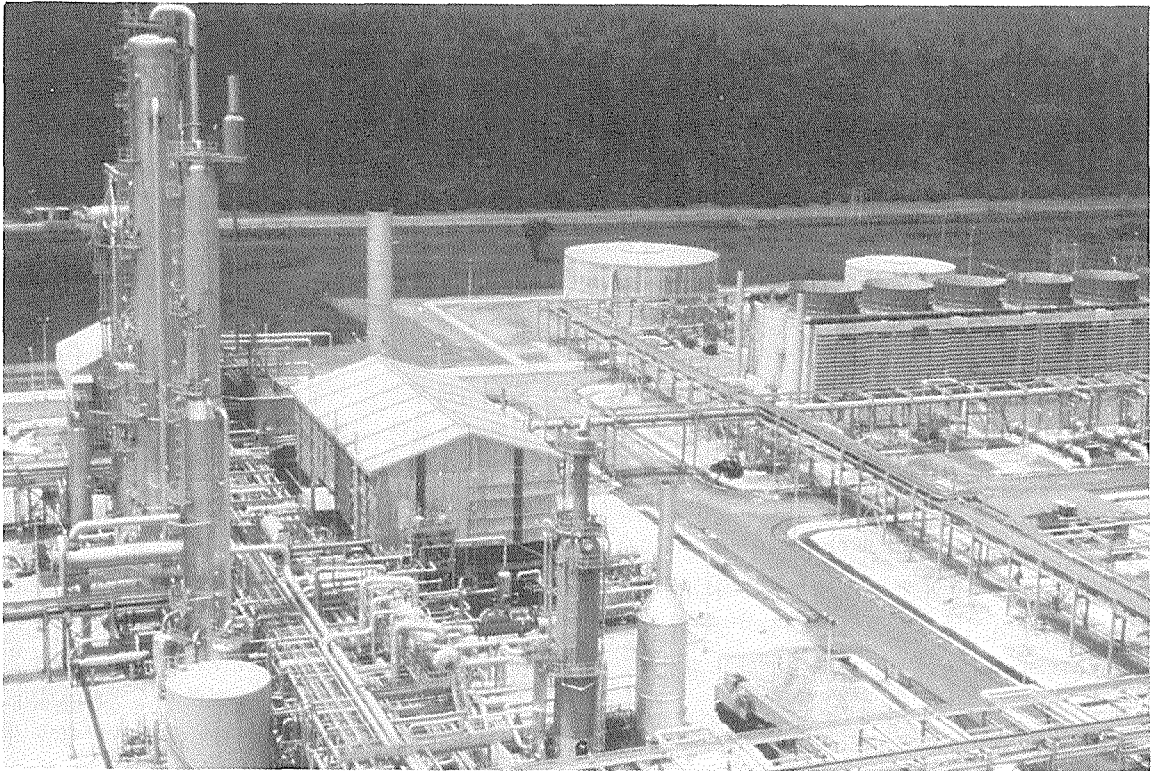


나이지리아의 석유산업



나이지리아의 Nafcon 공장 Plant

나이지리아는 1992년 원유생산량이 185만B/D에 달하고 1993년초 확인매장량은 179억 배럴로써 아프리카에서는 최대, 세계에서는 12번째의 대산유국이다. 로얄 더치셀과 BP가 1937년에 공동으로 탐사를 실시했고, 최초의 석유발견은 제2차 세계대전 후 1956년 오로이 비리 유전에서 있었으며, 1958년 2월부터 수출이 개시되었다. 1971년 4월 정부는 나이지리아 국영석유회

사(NNOC)를 설립, 1973년에 사업참가 교섭을 실시하여 셀, BP의 공동이권중 35%를 차지하였고, 1974년에는 55%로 증대되었다.

1977년 NNOC를 *Nigerian National Petroleum Corporation(NNPC)*으로 전환시키고, 1979년 7월 사업참가 비율이 60%로 증대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같은 해 아프리카 국가들이 남아프리카의 인종차별 정책을 비난하면서 영국의 남아프리카 지원을 빌미로

<표-1> 나이지리아 주요 원유

적 하 항 구 지 분 (%)		Bonny - Light	Bonny - Medium	Forcados
		Bonny	Bonny	Forcados
정부		60	60	60
셀		30	Elf 25 셀 15	셀 15.5 Elf 5.5 AGIP 9
일 반	API	36.7	24.8	29.7
성 상	황분 (Wt%)	0.15	0.2	0.2
	유동점 (°C)	+5	-35	-35
수 율 (%)	휘발유	25	6	17
	경유·등유	50	53	42
	중유	22	40	40
경질유 성 상	옥탄가	74	74 이상	75
	세탄가	46	35	45
	연점	19	19 이하	18
중 유 성 상	점도 CST (50°C)	129	560	69
	황분 (Wt%)	0.4	0.4	0.28
	유동점 (°C)	+30	+20	+20
	바나시름 (ppm)	2	2	2
	N (ppm)	2,920	-	2,040

BP지분을 국유화하였다.

80년대 BP에 보상하는 한편, 그 이권은 Elf와 AGIP 사에 매각하였으나, 다시 1991년 8월 BP의 복귀를 인정하였고, BP의 사업이 재개되었다. 1990년에 136광구의 입찰을 실시, 정부의 자금난에 의한 개발의 지연을 피하기 위해 생산분배 계약을 도입하였다. 대표적

인 원유는 *Bonny-Light*, *Bonny-Medium*, 포카도스로서 모두 저유황 원유이다.

석유수입

나이지리아에서는 1970년부터 석유가격이 붕괴된 80년대 초반까지 총계 1천억 달러의 석유수입이 유입되어, 1970~1974년간 석유수입은 정부 수입의 26%에서 82%로 상승하였다. 정부는 급증하는 석유수입의 처치가 곤란할 지경이었고 소비위주의 상품 수입분이 발생했다. 왜냐하면 국민이 일하여 벌은 돈도 아니고 세금으로 징수한 것도 아니며, 유정에서 나온 돈이어서 사용할 곳이 없어 예를 먹을 지경이었다. 나이지리아는 부족장이 부족민을 보살펴 주는 관습이 있는 사회이므로 정치가, 군인, 관료들은 근친자, 연고자, 관계인들에게 오일달러를 마구 뿌려 소비했으며, 자신도 소비한 것은 물론이었다.

<표-2> 원유생산 추이

생산량 (천B/D)		석유수입 (억\$)	
1973	2,100	1980	256
1979	2,300	1983	101
1980	2,055	1985	130
1985	1,475	1986	70
1990	1,780	1989	75
1991	1,895	1990	133
1992	1,850	1991	122

나이지리아에서는 정부계약과 인허가에서도 커미션이 있어 「인허가에도 가격이 있다」고 말해진다. 정부 소관사업이나 정부 조달물자는 리베이트가 높을 뿐 아니라 업자의 이득도 높아, 나이지리아의 공급사업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비용이 소요되었다. 그러나 석유 수입이 풍부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

나이지리아는 석유자금을 재원으로 한 결과, 국민 대부분이 국가 기관에 관여하는 것을 최고의 확실하고도 유리한 돈벌이로 여기고 있다. 서구의 척도로 보면 「부패정치」, 「금권정치」이지만, 나이지리아입장에서는 「친한 친구에 대한 우의의 제공」이고, 「부의 재분배」이다.

정부도 신규사업을 일으키고, 제철소나 고속도로, 신수도 등 특히 국가의 권위를 내세우는 사업에 투자했다.

국제수지와 재정적자

그렇지만 석유수입이 감소하자, 대부분의 사업이 중단되었다. Babangida 대통령은 취임하자 IMF 등 국제기관의 지도와 지원없이 나이지리아 스스로 경제의 구조조정 정책을 실시하려고 했다. 농산물의 전매제 금지, 가격자유화, 수입허가의 삭감, 은행제도의 규제완화, 환율시장의 자유화, 국영기업의 민영화 등의 정책을 추진했다. 그 결과 인플레이가 진정되었고, 중소기업의 개업도 증가했다. 그러나 한편 상대적으로 농업이

무시되었기 때문에 농촌에서 도시로 인구가 유입되었고 고가도로 밑에 판자집을 지어사는 등 도시 문제가 발생하였고, 식료품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전락했다.

또 석유수입을 생산적인 사업에 쓰거나 비석유산업을 육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역이 석유에 편중되어 수출의 93%가 원유와 석유제품이며, 나머지는 카카오나 카카오 버터 정도이다.

석유가격이 하락하면 곧바로 경상수지가 적자로 되며 재정도 80%를 석유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적자가 누적된다.

재정적자는 매년 비율이 다르지만 적자의 절대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고, 1992년에 44억 나이라(24억달러) 정도에 달했다.

이 적자를 나이지리아 정부는 중앙은행에서 차입하여(지폐 발행증대로 충당) 인플레이가 진행되고 있다. 1992년 통화공급이 66.4%증가, 인플레이율은 45%였다. 대외채무도 1989년 말에 328억 달러였다. 이 때문에 외자도입이 진척되지 않고 역으로 자본도피가 일어났다.

이러한 인플레이의 영향을 그대로 받는 것은 서민으로서, Babangida 대통령에 대한 항의운동이 발생하고 급진적인 이슬람 교도가 대두하였다.

비효율적인 석유정제

나이지리아 기업의 비효율도 놀랄만 하다. 영국의 Economist Survey에 따르면 가장 비효율적인 사업이 석유정제로 정유공장은 4개, 상압정제능력은 43만B/D이지만 투입량은 30만B/D 정도이며, 국내 소비는 25만B/D정도이나 석유통계는 명확하게 집계되지 않는다. 구 Port Harcourt 정유공장은 1989년 화재로 폐쇄되었다가 최근에 복구되었으며, 2개소는 생산량이 전년보다 20% 감소하였으며, 1개소만 증산이 되고 있다.

외국 석유회사는 정제공장에는 필요인원보다 5배나 많은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고 전한다.

국영 NNPC는 결산보고를 하고 있지 않다. 국제적인

나이지리아의 국제수지

<표-3>

	무역수지 (억달러)	경상수지 (억달러)	재정적자비율 (GDP에 대한 비율)
1980	112	51	-
1985	56	26	-
1988	26	- 2	8.4%
1989	28	- 1	6.7%
1990	-	-	8.5%
1991	-	-	12.4%
1992	-	-	9.8%

경제이론가의 견해에 따르면, 나이지리아의 원유생산량과 국제 원유가에서 추정하는 NNPC의 수입과 정부가 NNPC의 수입이라 말하는 금액 사이에는 27억달러의 차가 발생한다고 한다. GDP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 매년 국고에서 소멸되는 셈이다.

나이지리아에서는 휘발유가격이 1리터당 3센트로 아주 낮은 수준에 머물렀었다. IMF도 이를 시정하라고 권고하였지만, 국민의 반발이 두려워 정부는 가격인상을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나이지리아에서는 휘발유를 구입하여 인근 니제르, 베닌에 밀수출, 20배 이상의 값으로 팔았다.

밀수도 정권층과 연결되어 있어 적발되지 않았다. 대산유국인 나이지리아가 휘발유 부족으로 주유소는 긴 행렬이 서고, 주유원에게도 팁을 주지 않으면 연료탱크를 가득 채울 수 없었다. 주유해도 물탄 휘발유가 되어 엔진은 멈추는 일이 많았다. 정부도 마침내 가격을 조정, 휘발유는 1993년 8월 24일 종래의 약 10배인 리터당 34센트로 올렸다.

나이지리아는 천연가스 자원이 풍부하여 20년전부터 LNG 프로젝트가 구상되었지만, NNPC는 아직도 셸과 AGIP사와 교섭 중이다.

향후 전망

나이지리아의 인구증가율은 3.1%이다. 아프리카의 일반적인 인구증가율은 높아, 사하라 사막 이남의 평균이 2.8%, 노동력이 풍부하다고 하는 멕시코의 증가율 1.9%, 인도네시아 1.7%에 비하면 노동력 공급이 풍부함을 알 수 있어 교육만 제대로 되면 질 좋은 노동력과 성장성 높은 국내 시장의 발전이 기대된다.

그러나 늘어나는 국민을 보살피는 일은 더욱 어렵다. 인구증가율이 3.1%라면, 경제성장율은 이보다 높아야 생활수준이 나아진다. 나이지리아의 실질 국내 총생산증가율은 80년대말 7%에 달했지만, '92년에는 3.6%로 현상 유지 상태이며, 실제 중류 이하의 국민 생활은 고되다.

교육도 나이지리아 아동의 국민학교 졸업률은 84%에 달하여 사하라 사막 이남의 평균 62%보다 높고, 석유붐 당시 국가의 체면이 걸렸다고 증설한 대학만도 31개교이나 최근 석유수입감소로 폐교, 폐지된 학과도 상당하며, 직업선택에 대한 사고방식도 영국 식민지시대의 영향을 받아서 법률키, 의사, 작가나 예술가를 선호하여 기술자 양성은 완전히 실패한 것으로 외지는 전한다. 또한, 초등교육은 무상이 목표이지만 재원이 없어 교육 기자재와 교사교육도 충분치 못한 실정이다.

나이지리아의 석유, 천연가스, 노동력은 21세기에 기대되는 풍부한 자원이다. 정치경제의 조타수만 제대로 되어 있고, 부족간의 융화가 있다면 21세기에는 번영할 것이다. 군에도 부족간의 균형이 배려되고 있고, 청년을 전국에 파견, 순회하여 사회봉사하게 하는 제도도 있지만, 부족 상호간의 이해와 신뢰가 쌓여야 국가발전이 가능할 것이다.

또 하나 국가발전의 조건은 석유수입의 현명한 사용이다. 이것은 정치체제의 해체를 의미하며 의식개혁의 전제조건이다. 특히 지도층은 석유자원이 국민의 재산이라고 하는 인식이 필요하다. 그러한 인식이 없다면 부족의 독립요구가 커져 제2의 비아프라 내전을 경험할 우려도 있다. 나이지리아 민주주의에도 험난한 길이 놓여 있다. (순간 석유정책, '93. 10. 15)

우리의 농산물을 애용합시다